최인호의 『상도』에 나타난 동아시아 사상

The East Asian Ideology in Choi In-ho's Novel, The Way of Merchant

음 영 철
삼육대학교

Eum yeong-cheol
Sahmyook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동아시아 담론을 연구방법론으로 하여 최인호의 『상도』을 연구한 것이다. 요약하자면, 인간의 욕망을 극대화한 근대적 삶은 개인에게는 소외된 삶을 가져왔고, 국가 간에는 냉전이데올로기에 따른 여러 분쟁을 낳았다. 최인호의 『상도』에 나타난 도가사상은 이러한 난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Ⅰ. 서론

작가 최인호(1945~2013)는 70년대 이후부터 작고할 때까지 작품성과 대중성 양면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던 인물이다. 그러나 그에 대한 연구는 주로 70년대에 집중되었고, 많지도 않다. 다작의 작가 최인호에 걸맞은 작가론에서 작품론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본 연구의 목적은 최인호의 『상도』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사상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최인호가 보여준 90년대 장편소설들을 기존의 순수/대중소설에 입각한 도식적인 분석이 아닌 사상사적 검토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연구자는 최인호의 문학을 재평가하고, 그에 대한 연구 영역을 확대하고자 한다.

그동안 최인호에 관한 연구를 일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최인호는 등단 이후 50년 간 소설과 희곡 창작, 영화 연출 및 시나리오 각색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며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하였다. 그러나 그에 대한 평가는 70년대에 국한되거나[1], 60년대 김승옥 문학의 뒤를 잇는 '70년대적 감성의 혁명' 작가로 자리매김 되었다. 문단의 진영논리 또한 최인호 문학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주저하게 만들었다. 무엇보다도 『별들의 고향』(1973) 발간 이후 그에 대한 평가는 '상업주의 소설'의 선구 격으로 비판을 받았다[2].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최인호는 범종교적 소재와 역사에 관심을 기울인 작품들을 쏟아냈으며, 1990년대 이후부터는 이에 대한 연구들이 등장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 연구의 기반 위에서 최인호의 『상도』를 연구할 것이다.

Ⅱ. 본론

1. 탈근대의 대안으로서의 동아시아 사상

2016년 영국이 유럽연합 탈퇴를 선언한 이후로 지역공동체, 그중에서도 동아시아 지역공동체에 대한 논의가 다시 주목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가주의의 부활을 알리는 조짐을 보이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탈냉전 이후에도 여전히 한반도는 냉전이 낳은 분단체제가 소멸되지 않고 공고화 되고 있다. 동아시아는 군비경쟁, 핵문제, 해양관할권문제, 경제협력문제 등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쌓여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아시아를 둘러싼 국가 간 평화와 공존의 협력 모델을 찾는 것은 시대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아시아 그중에서도 동아시아 지역 설정은 학자에 따라 규정이 다르겠지만 본고에서는 좁은 의미로 해석하여 한국, 중국, 일본으로 지역을 설정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동아시아 지역의 지식인들이 주도하여 만든 동아시아론은 인문학적 사고방식과 사회과학적 사고방식이 결합된 것으로 서구 중심의 질서에 맞서 동아시아적 질서를 구축하려는 탈근대적 개념이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 이후 활기를 잃고 도태되기 시작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동아시아론은 동아시아 지역의 특수성을 발굴하고 세계질서의 견인차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동아시아인의 내면에 잠재된 동아시아 정체성을 규명한 것은 배타적 민족주의를 극복하고 평화와 공존의 논리를 찾기 위한 시대적 과제가 될 것이다. 90년대 이후 일본의 지식인 사회를 중심으로 하여 진행된 경제공동체, 정치공동체 담론은 부분적인 성과를 일구었다. 21세기 들어 전개된 동아시아 담론은 지적 논의를 넘어 실천적 차원으로 연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3] 예컨대 한국에서의 동아시아공동체 논의는 주로 사회과학 분야 학자들이 주도해오고 있지만 동아시아의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할 때, 정치와 경제뿐만 아니라 사상과 문화면에서도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동아시아에 잔존한 냉전 이데올로기의 산물을 지양하고 새로운 문화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만든 트랜스내셔널리즘(초국가주의)은 그간의 지리적 영역의 경계에 기초한 국가주의, 민족주의, 국민주의 넘어 역사·철학·문학·사회·문화·정치 현상을 바라보려는 것이다.

2. 최인호의 『상도』에 나타난 도가 사상

최인호의 『상도』 [4]에는 동아시아 사상 중에 하나인 도가사상이 나타난다. 최인호는 2백여 년 전에 실존하였던 인물인 임상옥을 중심인물로 설정하여 상업의 도를 펼친다. 최인호는 임상옥을 중심인물로 설정하여 인간의 욕망과 결부된 재물, 권력, 애욕과 같은 삼욕을 인간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밝힌다. 임상옥은 이 소설의 주제라 할 수 있는 세 가지 시험을 극복하면서 상업지도(商業之道)를 깨닫는다. 상도(商道)란 이익보다는 사람을 남기는 것으로, 임상옥의 평생 좌우명인 "財上平如水 人中直似衡" 속에는 노자의 무소유 개념이 담겨 있다. 이는 5권에서 임상옥이 임종게(臨終偈)에서 말한 바와 일치한다.

본 연구는 노자의 도가사상이 최인호의 『상도』에 발현된 양상을 중점적으로 거론할 것이다. 이는 노자의 『도덕경』과의 비교 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될 것이다. 예를 들어 '財上平如水'는 『도덕경』의 '上善若水'에서 온 것으로, 임상옥의 삶에 도가사상이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예증한다. 예를 들어, 임상옥이 인위적으로 자신의 힘을 발현하지 않고 약자를 보호한다든지, 자신의 재물을 이웃에게 나워주는 것은 노자의 무소유 개념에 닿아 있다. 조선과 중국을 배경으로 한 『상도』에는 무소유와 관련된 도가사상이 나오는데 이는 근대 자본주의의 병폐인 소유욕망을 극복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다.

3. 최인호의 『상도』에 나타난 동아시아 사상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동아시아 담론'을 연구방법론으로 하여 2000년대 발표된 『상도』를 연구하고자 한다. 동아시아 담론은 후기자본주의에 이르러 형성된 서구중심주의와 이성중심주의에 대한 반발로 나타났으며 양가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예컨대 유교자본주의는 서구적 근대의 토착화를 의미하는 동시에 서구에 의해 억압당했던 내적 발전의 역동성을 회복하는 매개항인 것이다.[5] 그러나 자본주의의 토착화(유교자본주의)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적 문화의 부활에 대한 서구적 근대의 현실적 지배가 여전히 완강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동아시아 3국(한국, 중국, 일본)은 연대보다는 세력관계에 지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 속에서도 동아시아의 전통 사상에 관한 탐구는 동아시아가 연대할 수 있는 다양한 담론을 제시할 것이다. 예컨대 동아시아의 정치경제의 발전을 논한 유교자본주의론, 유교민주주의론, 아시아적 가치론 등은 기존의 서구문명이나 서구자유주의에 대항하여 자민족중심주의를 비판하고 21세기 새로운 사회의 구상력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최인호의 『상도』에는 동아시아의 정체성을 찾고 탈근대의 단초를 제기하기에 충분한 소설이다. 이에 연구자는 동아시아 담론이 다룬 여러 자료들을 활용하여 동아시아의 보편적 가치를 획득한 유불선 삼교 사상이 최인호의 『상도』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제시할 것이다. 또한 실존 인물과 허구적 인물이 팩션의 기법을 통해 제시되는 과정을 탐구함으로써 최인호의 소설이 보여준 가능성과 한계를 논할 것이다. 본 연구자는 동아시아의 사상을 논한 최인호의 소설들이 21세기에도 여전히 동아시아인들의 상상력을 자극할 것이라 본다.

Ⅲ. 결론

본고에서는 최인호의 『상도』에 나타난 동아시아 사상이 도가사상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실존 인물 임상옥이 펼친 상업의 도가 결국 재물, 권력, 애욕에 길들여진 삶을 지향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개인이 욕망에 기초한 소유지향적 삶이 아닌 무소유에 기초한 존재지향적 삶을 지향할 때, 탈근대의 단초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 참 고 문 헌 ■

[1] 김지윤, 최인호 문학에 나타난 개인의 의미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2] 김종철, 상업주의 소설론, 백낙청, 『한국문학의 현단계』 II, 창작과비평사, 1983.
[3] 장인성, 한국의 동아시아론과 동아시아 정체성: '동아시아의 새로운 상상'과 '국제사회로서의 동아시아', 『세계정치』 제26집 2호,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2005.
[4] 최인호, 상도, ㈜ 여백미디어, 2000.
[5] 나병철,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을 넘어서, 소명출판, 2001.